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3~2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대중문화와 종교교육의 과제

宋 柄 淳

(영남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상업주의에 오염된 대중문화를 순화시키는 일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전제 아래, 대중문화를 순화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비교하여 대중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허상으로 주체적 자기결정성의 상실이 초래한 상대주의적 가치지향성과 일탈행동, 욕구충족의 해방구로써 무절제한 쾌락주의, 도덕성 상실과 폭력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해 온 대중문화의 허상을 순화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 주제어: 문화, 대중문화, 고급문화, 종교, 종교교육

I. 서 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속에서 선형적으로 주어진 상징체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문화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상징행위(sym boling)가 가능한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서 "사물에 의미를 창작하고, 결정하고, 부여하며, 이해하는" 의미행위라고 주장한 화이트(L. W hite), 문화나 사회는 하나의 체계로서 개인 차원의 실존적 결단이나 책임, 자유와 상관없는 집단적 표상이라고" 주장한 레비-스트로스(C.

4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Levi-Strauss)를 비롯한 구조주의자들의 견해, 그리고 "문화란 인간 행동에 의하여 학습된 부분으로서 인간 스스로가 창조하여 자신의 환경의 일부로 삼은 사고 방식, 감정양식 및 행동유형을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는 비선츠(M. H. Biesanz) 등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신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화의 기능을 설명하는 네덜란드의 비교문화학자 홉스테드(G. Hofstede)의 주장에는 인간들은 문화적 상황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느 한 사회에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잠재적 행동들을 일종의 정신 프로그램으로 내장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은 처음 가족 안에서 주입되기 시작하다가, 자라나면서 같은 문화를 가진 이웃, 학교, 직장 등에서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히 정신 프로그램을 습득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면 내장된 정신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생겨난다. 정신 프로그램 속에는 상징, 영웅, 의식, 가치 등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들어있는데, 상징이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이나 동작, 행동, 헤어스타일 등 그 문화의 피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웅이란 그 문화 안에서 높이 받드는 특징을 지녀서 행동의 귀감이 되는 스포츠 스타, 영화 스타 또는 영화나 만화의 주인공 등 모방대상을 의미하고, 의식이란 한 문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 활동인 인사법이라든지, 존경을 표하는 법과 같은 행동양식이며, 어떤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포괄적 경향성인 가치가 그것들이다. 사람들은 상징, 영웅, 의식, 가치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투워트(Edward C. Stewart)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유형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화는 사람들의 활동형태, 인간관계 형태, 세계관, 자아인식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문화 차이가 너무 클 때 그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현대인들의 문화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중문화이다. 즉, 대중문화는 현대인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배문화인 셈이다. 대중문화는 현대인의 삶과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틀이자, '정신 프로그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대중을 자기결정성이 있는 능동적 참여주체'로 보느냐, 문화산업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소비주체'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설명을 하고 있다.

자기결정성이 있는 능동적 참여주체'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주체적 자기결정성'을 지니는 대중이 주체가 되는 민중문화이자 군중문화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영국 문화연구'전통에서 대중은 대중문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

니라 능동적 주체로서 무비판적으로 대중매체에 내맡겨진 희생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통파트너로 설명되고 있다¹⁾. 즉, 대중문화의 수용자로서 대중은 문화산업에서 사전에 완성해 놓은 미사여구들의 결을 거슬러 읽고 비판적으로 주석을 달며 무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항적'의미규칙에 따라 지배적 규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반면에 문화산업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소비주체'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중을 말초적이고 향락적 자극을 기다리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학파에 의하면, 문화산업³⁾란 사람들에게 문화와 정치, 일상생활에서 무자비한 일치를 강요하는 냉엄한 체제요 지배자로 주장한다. 즉,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이고 통일된 양식을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적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위험한 존재이며, 산업적인 제작, 배급을 통해 표준화되고 조작된 요구에 의해 탄생한 사이비 문화라는 것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두 입장 즉, 자기결정성이 있는 능동적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문화산업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소비주체'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각각 나름대로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아무리 감각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문화상품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비판하며 이를 향유하는 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산업론에서 제기하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의 주체적 자기결정성'이 대중문화의 역기능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다양한 대중문화 상품이 끊임없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주체적 자기결정성'만으로 대중문화에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향락적 소비주의를 극복하기란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산업은 어디까지나 상업주의를 근간으로 이윤 창출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다. 대중문화산업에서 생산되는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은 일반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대중문화산업들은 관련 산업체와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신문, 잡지, 영화,

1) 대중문화에 대한 폄하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그것을 진지한 고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흐름은 R. Williams, R. Hoggart, E. Thompson, S. Hall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형성되었다.

2) 임영호,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1996, 20쪽.

3)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을 '대중문화'를 대체하는 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산업은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문화발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산업이며, 여기서 대량생산되는 문화항목이 문화상품이다.

방송, 음반산업 등과 같은 대중문화산업들은 시장의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광고수익도 증대되므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가 하는 상업적 전략이 교묘히 숨겨져 있는 상품과 다름이 없다. 대중문화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것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흥미를 돈구어 상품으로 팔기 위한 전략으로 기획, 제작되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본질인 이윤 추구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대중문화의 상업성의 추구는 향락적 소비주의를 만연시키고, 돈을 지상최대의 가치'로 여기게 하는 가치전도, 대중들을 찰나적인 욕구충족에 사로잡히게 하는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화적 측면의 삶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기와 물이 생물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필요조건이라면, 문화는 인간의 건강한 사회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상업주의에 오염된 대중문화를 순화시키는 일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해 온 대중문화의 허상을 살펴보고, 대중문화를 순화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인간 욕구를 확대 재생산 해온 대중문화의 허상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문화는 존재해왔다. 그러나 특정 시대 혹은 사회의 문화를 좋은 문화 혹은 나쁜 문화로 구분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특정한 문화를 우월한 문화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문화는 그것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대중을 지배하는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저질문화로 폄하되기도 한다.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논쟁은 19세기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논쟁속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대중문화는 산업사회의 지배문화로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중문화가 문화소비자로 보다 많은 대중을 확보할수록, 대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수록 대중문화에 대한 대중문화를 둘러싼 고급문화 - 저질문화 논쟁은 더욱 격심해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대중문화에 대한 고급문화 - 저질문화 논쟁이 단순히 대중문화의 생산

자와 소비자가 전통적인 엘리트 계급과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문화가 천하고 유치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의 생산과 유통이 현대 산업 사회의 물질적 생산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화의 깊이와 진실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중문화가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며, 사회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간성 그 자체를 파괴할 정도로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1. 대중문화와 전통적 고급문화

사전적으로 대중성(Popular)'은 애호됨', 민중성'을 뜻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대중문화'는 민중문화'와 집단문화', 그리고 하위문화'의 일정한 부분들을 포괄한다. 대중(mass)'은 유럽에서 비 귀족적이고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을 지칭했으며, 오늘날에는 중, 하층 이하의 노동자 계층 및 가난한 사람들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전반적 경제 상황의 개선과 문화적 기회의 향상으로 서구에서 계층적 구분은 그 의미를 많이 상실했지만, 집단이라는 용어가 분별없는 무리'나 심지어는 폭도'로 쓰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집단문화와 구분하려는 시각도 있다. 또한 대중 소비를 집단 문화에 연결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대중문화와 구분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있어서 그 구분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주의 체제 하에서 여가 활동은 각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교회나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였다.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문화적 접촉은 없었고 둘 사이에 갈등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예술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중과 엘리트 사이에 문화적 접촉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8세기 중엽부터이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대중적 수용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그들에 맞는 문화 내용을 창조해내는 작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적 흥미를 끄는 가십이나 애정 이야기, 상담 칼럼 등을 담은 잡지들이 등장했고 소설은 어느 때보다 대중적 상품이 되었다.

19세기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봉건체제의 모든 형태들이 붕괴되었다.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교회와 국가의 구속에서는 벗어났으나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철학과 예술의 수요자인 그들의 취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

4) Gans. H. J., 강현두 옮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서울: 나남, 1996. 29쪽.

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영국에서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에 대한 논쟁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왕성하게 벌어졌다. 황색 책표지(yellow back)로 대표되는 대중적 문예물이 일반 시민의 문화를 퇴조시켰다는 주장과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는 주장이 맞섰으며, 진실한 미와 정신적 가치의 파괴를 우려하는 입장과 평범함의 가치에 대한 옹호가 맞섰다.

이 논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점한 것은 고급 문화의 옹호자들이었다. 이때 형성된 예술의 위상을 포스트모던의 이론가인 쥐라프(Gerald Graff, 1990 : 114)는 예술 종교(The Religion of Art)로 표현한다⁵⁾. 독일에서 이러한 태도는 괴테, 쉴러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주의와 함께 형성되었으며, 고급문화(연극, 고전 문학, 고전 음악)는 대중문화(영화/ 카바레, 통속문학, 대중음악)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나아가 진정한 예술'을 키치나 저속한 작품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향이며 타고난 재능(천재)으로 양식화되기도 했다⁶⁾. 따라서 대중문화와 전통적 고급문화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전통적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비교를 통해서 볼 때, 대중문화는 ① 문화 형성의 책임이 회피 될 수 있는 국적 불명의 다양한 종류의 대중매체에 의해서 상징의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문화, ② 다차원의 문화상대주의의 가치지향성에 따라 신념체계의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문화, ③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각적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현세적 쾌락주의 문화 ④ 끊임없이 최신의 것을 창출하여 제 공함으로써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유행 문화 ⑤ 문화의 내용과 형식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업주의 문화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Gerald Graff, <The Myth of the Postmodern Breakthrough> in Chung-Ho Chung(ed.), *Postmodernism*, Seoul: Hanshin, 1990, 114쪽.

6) 진동열, <포스트모더니즘과 대중성의 문제 -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제18집, 2002, 243쪽.

<표 1> 전통적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비교

구 분	전통적, 고급문화 (traditional and high culture)	대중문화 (mass culture, popular culture)
생산자	특권층의 귀족, 지식인	대중매체
소비자	문화형성자와 소비자 동일	모든 계층의 대중
가 치 지향성	항구적 가치(표준) 중시의 경향성	문화상대주의 : 신념체계의 혼란
	전통적인 것을 중시	새로운 것의 추구 : 끊임없이 최신의 것을 유행시킴
	능력을 찬양함	명성을 찬양함
	연속적 역사의식 : 문화창조의 책임	불연속적 역사의식 : 문화생산의 책임회피 무의식적 "시간보내기" (kill time) 추구
	지식과 지혜를 강조함	정보와 사소한 것을 강조함
사고 방식	깊은 사고(성찰)를 고무시킴	깊은 사고(성찰)를 억제시킴
	훈련을 요구함 : 인내심을 고무시킴	즉각적인 욕구 충족 : 조급함을 조장
감 수 성	적절하고 균형 잡힌 감정에 호소함	감성에 호소함
	우리의 감수성을 변화시킴	대중문화에 내재 된 감수성을 수동적 수용
	암유적(allusive), 초월적인 것을 암시	다의성(ambiguity) 결여 구경거리에 의존
내용 형식	창조질서의 요구에 지배됨	내용과 형식이 시장의 요구에 지배됨
	내재적 속성에서 미학적 힘을 발휘함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미학적 힘을 발휘함
	형식은 도구일 뿐임	형식 자체가 본체임
	질적 관심(qualitative concerns)	양적 관심(quantitative concerns)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제공 : 상징적 경험세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것 제공 금기의 위반 : 폭력과 음란성의 경향성
	문화의 본질적 가치 추구 : 심미적 경향성	문화의 상품화 : 소비지향
집단 성향	공동체주의 지향	개인주의 지향 : 강한 자기중심성

자료: Kenneth A. Myers, All God's Children and Blue Suede Shoes: Christians & Popular Culture. 오현미 역,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 서울: 나침반사, 1992. 120쪽의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비교를 재구성.

2. 주체적 자기결정성의 상실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매체, 라디오·레코드·CD 등의 음성매체, 텔레비전·영화와 같은 영상매체, 인터넷, 휴대폰, 화상 전달망, 직접 위성망, 케이블 방송 등의 대중매체이다.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이와 같은 대중문화 산업이 생산한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중은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되어 있으며, 익명의 원자화된 개인들이며 수동적인 존재들이다. 따라서 소비자인 대중은 대중문화 산업의 문화상품 판촉활동에 의해 쉽게 조작되는 성격을 지닌다. 대중문화의 생산자인 대중매체는 바로 대중문화산업의 주체이다. 쓰면 뵈고 달면 삼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중매체는 철저하게 대중의 요구를 문화산업의 요구로 포장하여 문화 상품을 만들어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문화의 창조자는 자신의 독창적인 창조 행위에 전념할 수 있는 고급문화의 창조자와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중문화는 다양한 대중매체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생산자의 실체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화형성 행위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 생성주체의 복합성과 대중적 익명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대중문화에서는 역사적 인식이 뒷받침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깊은 사고를 고무시키는 것, 훈련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진지함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될 수 있는 한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즐겁게 소비될 수 있는 문화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소비자들이 대중문화 상품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흥미롭게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문화의 역기능적 특성에 오염된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으로 상대주의적 가치지향성이 초래하는 신념체계의 갈등에서 오는 일탈행동, 대중문화의 상품의 소비과정에서 조건형성이 되어 있는 즉각적 욕구충족과 무절제한 쾌락주의, 그리고 도덕성 상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폭력성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상대주의적 가치지향성과 일탈행동

오늘날 우리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또는 "그것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듣고 쓰고 있다. 이러한 말은 지극히 대중문화의 가치지향성인 다원주의적 상대주의를 그대로 나타내는 실례이다. 상대주의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상호갈등 하

는 신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상이한 신념체계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는 곧 신념체계의 갈등으로 환원된다. 소위 다원적 상대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중문화에는 하버마스(Habermas)가 주장하는 소위 "정당성의 위기"(the crisis of legitimation)가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에는 상호 갈등하는 신념체계들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주는 이른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합리적인 수단들, 즉 누가 옳바르며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현대 문화의 전반에 흐르고 있다.

대중문화에서 중시되고 있는 상대주의적 가치지향성은 로티(Richard Rorty)가 말하는 소위 "정치적으로 온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the politically correct)의 개방적 정신(open-minded)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사회는 토착인의 북연주(drumming)는 심미적으로 모짜르트(Mozart)의 심포니와 동일하며, "투 라이브 크루"(2 Live Crew)의 랩 음악이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소네트(단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지성인으로 찬양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는 진리이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아니다." 라는 말속에는 통속적인 표현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은 뉴 에이지 운동의 교사(guru)인 맥클레인(Shirley McLaine)의 "여러분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라는 주장의 동어 반복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상대주의적 가치지향성에 기인하는 신념체계의 혼란은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는 다양한 일탈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혼전 성경험과 동성애, 마약복용, 폭력행사, 자살 증가 등은 그 실례이다.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는 이러한 일탈행동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미화하는 금기의 위반의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업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2) 욕구충족의 해방구로써 무절제한 쾌락주의

현대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의복과 음식, 통신수단, 오락 등 모든 것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사고와 생활 방식에 대중문화의 특성은 잘 영합하고 있다. 사실 대중문화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즉석에서 만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즉각적 만족은 그 소비자인 대중들로 하여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음미할 수 있는 식견을 미리 봉쇄해 버리며 허무에 가까운 즉흥적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창조적 비판정신을 마비시켜버린다.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즉각적 욕구충족에 몰입과 중독은 폐쇄적 자기방어에만 열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중문화의 이러한 특성은 대중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패배주의를 만연시키고,

중국에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 되어버리고 삶 자체를 천박하게 만들어 버린다.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버리고 초월적,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가장 쉽게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 쾌락주의이다.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는 현실적 쾌락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글라스 웹스터(Douglas Webs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대중문화는 로마인들 만큼 쾌락을 사랑하고 고린도인들 만큼이나 도덕성을 상실했다. 1세기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쾌락주의적인 삶의 양식에 바쳐진 도시였다. 당시 로마에는 세 곳의 주요 극장들이 있었는데, 일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폼페이(Pompeii)극장, 팔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발부스(Balbus)극장, 그리고 일만 사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마르셀루스(Marcellus)극장이었다. 이들 극장 외에도 대중 목욕탕, 체육관 그리고 행락용 선박들이 쾌락에 대한 로마인들의 갈망을 말해 주고 있었다. 상업활동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의 거리에도 상인, 군인, 선원, 그리고 여행자들로 북적거렸다.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Aphrodite)를 숭배하는 제사가 이 도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천여명이 넘는 매춘부들과 여사제들이 에로폴리스(Aeropoliis)의 사원 주위에 있는 호화스러운 구역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들의 쾌락추구적 문화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의 문화가 오늘 우리의 문화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몰락은 2000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는 제시된 레드카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거짓과 욕망이 춤추는 문화 : 도덕성 상실과 폭력주의

대중문화는 폭력성과 도덕적 퇴폐성으로 얼룩져 있다. 대중문화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더 큰 이윤을 창출한다는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대중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흥미롭게 만든다. 그 결과 대중문화는 오락지향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하여 성별·연령·교육정도·직업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섹스·돈·명예·폭력·거짓·음모·뒤통수치기 등이 주된 소재가 되게 된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최장기 공연 기록 뮤지컬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시카고」는 거짓과 욕망이 춤추는 대중문화의 단면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도덕불감증으로 황폐해진 현대인의 삶의 존재방식을 여실히 들어 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영화 「시카고」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굴절된 양심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섹스·돈·명예를 위해서 동물적 폭력을 행사하면 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조폭 마누라」, 「친구」, 「바람난 가족」 등도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카고」와 다를 바 없다. 키슬러 2세(Edwin Kiesler Jr.)는 TV 폭력 :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가 평범한 아이라면 15세가 되기 전에 만 삼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될 것이다. 만일 그 아이가 금년 한 해 동안 황금시간대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시청한다면 그는 한 시간에 여덟 번의 비올로 살인·구타·강간·노상강도, 그리고 약탈 행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시간대의 프로그램 중 사분의 삼은 폭력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섹스·돈·명예·폭력·거짓·음모·뒤통수치기 등을 소재로 삼기 때문 대중들에게 은연중, 그러나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반사회적인 행동규범을 가르치며, 사치와 낭비의 풍조를 만연시키고, 황금만능주의를 전파시킨다. 폭력이나 섹스 물 등은 대중에게 모방 심리를 자극할 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불감증을 유발, 보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하고 결국은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으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Ⅲ. 대중문화 순화를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종교의 본래적 기능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사적 기능이다. 동물은 자기를 위협하는 대상에게 덤벼들거나 아니면 꿈무늬를 빼고 달아나는 모습의 두 가지의 모습을 취하지만, 원시시대 불가항력의 어려움에 직면한 인간은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짹짹 비는 '달램의 포즈'를 취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식의 시원이며, 제사적 기능의 원초적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화적 기능이다. 교화적 기능은 어떤 종교이건 간에 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능 말한다. 그래서 많은 종교집단들은 나름대로 교화적 기능을 통하여 신도를 통합하고 교세를 확장한다. 인간의 교육의 근원은 종교의 교화적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세째, 창조적 기능이다. 이것은 인간이 초자연적·절대적 힘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절대자(종교)에 의지하며, 자신들이 처한 운명적인 상황과 제약된 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초월의 지혜를 발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른바 인간의 문화 창조를 종교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창조적 기능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종교의 본래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발

휘될 때는 인간의 삶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하지만, 역기능적으로 발휘 될 때는 종교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고 순교를 강요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순기능적 관점에서 오도된 대중문화를 순화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인간 존재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세계관을 제공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

인간상황의 특징은 "생물학적 취약성" 과 "실존적 이분성"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다⁷⁾.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본능적 장비가 불완전하게 구비된 존재이다. 하지만 특이하게 이성, 자아, 상상력 등이 나타남으로써 동물적 생존을 특징지어 주고 있던 조화가 와해되어 인간 안에 이분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 이분성은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무한한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축복인 이성은 또한 저주이기도 하다. 이성은 풀리지 않는 이분성의 문제를 끝없이 풀려고 노력하도록 만든다. (...) 인간존재는 끝없는 또한 어쩔 수 없는 부조화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사고 안에서 이와 같은 화합과 균형을 위한 준거 틀로서 도움이 될만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신적 세계상을 만들지만,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아울러 가졌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지향성의 틀과 헌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욕구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프롬은 이것이 모든 사회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진화는 본래의 고향, 즉 자연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인간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다시는 동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뿐, 자연의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만듬으로써, 스스로 참된 인간이 됨으로서, 새로운 고향을 찾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는 이와 같은 인간존재의 조건에서 파생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열정에는 "청향의 틀과 헌신의 대상에 대한 욕구" 이외에 "결합을 추구하는 욕구", "코착(유대) - 우애와 근친애 - 의 욕구", "초월의 욕구" 및 "청체감에 대한 욕구" 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이 욕구와 열정 모두는 동일한 인간조건에 뿌리를 박고서 이 모든 모순된 인간의 존재조건을 극

7) Fromm, E., *Man for Himself*, N.Y.: Holt Rinehart and co., 1947. 36-47쪽.

복하려는, 즉 화합과 균형을 찾으려는 하나의 보편적, 절대적 추구로 나타난다는 점과 인간행위의 가장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⁸⁾.

대중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주체적 자기결정성을 가지지 못한 채, 신념체계의 갈등 속에서 일탈행동에 가담하고, 대중문화를 욕구충족의 해방구로 삼아 무절제한 쾌락주의에 빠지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성’과 ‘실존적 이분성’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중문화는 대중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문화상품을 만들어 대중의 욕구를 자극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대중은 끊임없이 육체와 정신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때 대중은 주체적 자기결정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육체와 정신이 부조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야 한다. 즉각적인 욕구충족 그 자체를 지연시키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예컨대 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내지는 세계관은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는 대중문화의 상대주의적 가치 지향성이 초래하는 신념체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판단의 가늠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은 곧, 인간성 사실을 초래하는 대중문화를 수화시키는 종교교육인 것이다. 한마디로 종교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세계관을 제공하는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개인의 사회화와 퍼스낼리티의 통합의 역할

‘사람은 바로 그가 먹은 그것이다(Man is what he eats)’라는 말이 있다. 즉, 사람의 정신은 바로 그가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지각한 상태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정신 속에 좋은 생각, 정확한 지식, 착한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면 그의 사상과 행동은 좋고 착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반대로 잘못된 지식, 사상하거나 추악한 생각과 감정이 들어간다면 그의 언행은 사악하고 추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중문화를 통하여 우리가 접하는 문화상품은 어떠한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중문화는 문화 형성의 책임이 회피될 수 있는 국적 불명의 다양한 종류의 대중매체에 의해서 상징의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이며,

8) Fromm, E., *The Sane Society*, N.Y.: Rinehart and co., 1995, 24-25쪽.

다차원의 문화상대주의의 가치지향성에 따라 신념체계의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문화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각적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는 현세적 쾌락주의 문화이며, 끊임없이 최선의 것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성향을 부추기는 유행 문화이고, 문화의 내용과 형식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상업주의 문화이다. 즉,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있는 대중문화의 중심에는 욕구충족의 해방구라는 무절제한 쾌락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 욕구충족을 위한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은 창조적 비판정신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폐쇄적인 자기방어에만 열중하는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염된 물은 깨끗한 물로 걸러내어야 하고, 파괴된 생태계는 새롭게 복원해야 하듯이 대중문화의 무절제한 쾌락주의에 노출되어 파괴된 인간성이 무엇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유는 인간성 회복이 사회유대와 통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10개월 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참다운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연설문에서 「인간의 이성(지혜)은 계속 발전하지만 인간의 감성은 계속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상실한다. 그러기 때문에 원자탄이나 수소탄은 몇 나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살상 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성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아인슈타인의 연설문은 과학 문화의 발달로 인한 정신문화의 위기를 예견한 것이다.

종교가 퍼스낼리티의 통합과 인간성 회복에 나름대로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주의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화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종교는 고도의 과학화, 산업화, 기계화, 기술화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생활의 무의미성, 아노미현상, 소외, 무분별한 감각적 쾌락추구, 도덕적 타락, 이혼율의 증가, 공해, 교육붕괴, 인권유린 등 산적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모이며, 교세 확장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중이 대중문화를 욕구충족의 해방구로 삼아 무절제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은 다원화된 대중사회에 올바른 응답과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소속감을 깨닫게 해 주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실망하고 실패했을 때 위로를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한다. 또한 인간생활과 노력의 유의미성을 보장하는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 표현적 욕구의 출구와 인간감정의 정화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을 사회화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성의 회복

대중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중독성 문화들의 과잉과 폭주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원화·첨단화된 시장의 온갖 문화적 자극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기에도 무척 바쁜 몸들이다. 의식주를 점령한 인스턴트 문화, 내 손안에 들어온 모바일 문화, 공동체를 대체한 스포츠와 레저 문화, 끝없이 세포 분열하는 동호회 문화, 날로 번창하는 향락과 도박 문화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러브호텔이 제일 많고, 유흥업소가 무려 40만 개나 되고 술집 접대부가 120-150만 명이고, 단란주점이 약 2만개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향락주의적인가를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일년에 여기서 소비한 돈이 무려 4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의 가정과 성도덕 문화는 어떤가? 신세대 주부들의 60% 정도가 결혼 후에도 남자 친구 사귀기를 원한다고 한다. 거의 날마다 성폭력사건은 유치원에서 칠순 할아버지까지 무섭게 번지고 있다. 성폭력은 이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범종교적인 성직자들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저질 사회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일찍이 뒤르껀이 말한 도덕성의 빈곤에서 오는 극도의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판단할 정당한 표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운동은 참 마음의 회복이요, 양심의 회복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 마음을 회복 할 수 없다. 모든 범죄 행위에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은 양심이다. 그런데 이 양심의 부재가 범죄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쾌락 원칙에 따라 지배를 받을 때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성 회복운동을 통해 오염된 사회를 정화 시켜야 한다.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물량주의·권위주의의 껍질을 뒤집어 쓴 채 더 큰 병에 감염되어 있다면 종교다운 종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도덕성 회복을 위해 먼저 양심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심을 팔고 사는 세대에서 종교교육의 역할은 공허한 이론의 나열보다는 진정으로 그들이 다가설 수 있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모든 도덕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IV. 결 론

대중문화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근대화의 진전이 있었다면, 문화적 측면에서 전개된 사회변동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라 할 수 있다. 대중문화가 현대사회의 지배문화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 이유는 매스 미디어는 단순히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대중문화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라디오, TV로 대표되는 전파 미디어의 등장과 발달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시킴으로써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⁹⁾.

전파매체는 그 현장감과 신속성 및 광범위성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전파매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중의 인기는 컬러 TV가 도입되고 대중을 위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TV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문화생활양식을 바꾸고 커다란 문화변동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문자가 지배하던 양식이 퇴조하고 영상과 소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중문화에서도 이성과 논리보다는 감성과 상상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전파매체의 발달은 입장료 같은 부담 없이 가정에서 뉴스, 교양, 문화, 예술, 오락 등을 즐긴다는 것으로 일상생활 양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은 TV를 통하여 싼값으로 거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대중은 언제라도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 오

9) 20세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의 발전은 테크놀로지 및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1895년 무선통신이 발명된 이후, 무선전신, 전화, 라디오는 군사 및 상업활동으로 원거리 통신용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정보, 여가, 오락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에 의해서 충족되었다. 이후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대중의 문화적, 오락적 욕구를 손쉽게 충족시켜주는 강력한 매체가 되었다. 대중매체 가운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송신과 수신 기술의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방송의 기초적인 기술은 이미 19세기에 완성되었지만 실제 방송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각국의 경쟁 속에 시작되었다. 라디오방송은 무선통신법과 진공관 발명이 된 후 1920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프랑스는 1921년, 독일은 1923년에 라디오방송사가 개국하였다. 텔레비전 방송은 1936년 영국BBC방송사가 처음 시작했고 이어 1939년 미국에서도 방송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NTSC방식에 의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표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 텔레비전 방송산업이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방송은 1961년 KBS방송사의 개국으로 시작되었다. 오늘날 방송은 각국의 사정이나 공공성 이념의 발달 정도에 따라 상업방송, 국영방송, 공영방송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현택수, <텔레비전 방송의 발전과 대중문화>, 《열린세계(SK 사회보)》, 1999년 12월호).

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세기 말엽에 접어들면서 위성 TV 방송과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세계문화는 더욱 혼재되고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들은 더욱 지구촌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위성방송의 스피드 오버 현상은 국가간, 종족간 문화 차이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족이 즐기는 대중문화는 다양성과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대중문화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과거 극소수 특권층의 문화를 대중의 문화로 전화시켜 문화의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저마다 취향에 따라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원주의 문화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만으로 대중문화의 역기능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문화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차원에서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회의 확대가 곧 '문화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본질인 이윤추구적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대중문화의 상업성의 추구는 향락적 소비주의를 만연시키고, 대중들을 찰나적 욕구충족에 사로잡히게 하는 등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우리의 문화적 갈등을 적서 주기도 하겠지만, 대중문화의 상업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 탈정치화 등의 경향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 정신과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 21세기 대중문화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것이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미디어 내용에 예술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진실성, 지적 성찰 등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각 부문과 영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종교적 차원에서도 각 종파를 초월하여 오도된 대중문화를 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종교는 절대적 권위를 누렸지만, 오늘날에는 점차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화되어 가고 있다. 종교의 세속화란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를 말한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종교가 사회 체제의 운영, 사회적 자원의 지배는 물론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현대사회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점점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 내에서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개인적 자율성의 증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의 개인들은 종교가 제시하는 신앙 진술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윤리 도덕의 계율을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도 종교 지도자의 권위가 많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세속화 내지 쇠퇴의 한 측면으로 종교의 다원화 현상이 나타난

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교통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한 공간적 압축은 특정한 종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한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종교 상황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다종교상황은 현대의 한국사회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간략히 오늘날 한국의 다종교 상황을 개괄하면 불교·개신교·카톨릭·유교·무속 및 민족종교와 이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흥종교 등 500여 개의 종교가 명확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경쟁하고 있는 종교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이나 구미의 교회가 세속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쇠퇴하여가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는 나날이 성장해감을 관찰할 수 있고, 각 종교간의 치열한 교세확장 경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종교가 한국사회에서 유의미한 존재로 남아 있으려면 종교가 과거 전통사회에서 수행했던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남아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종교가 이러한 사제적 기능으로 사회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기 보다는 예언자적인 기능으로 사회에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와 갈등 등에 대하여 적극적 의미로 사회변동을 증진시키는 역할로 나타나 사회의 변화와 개인적 발전의 과정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본질에 비추어 종교가 수행해야 역할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교육은 인간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세계관을 구성하는 토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종교교육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지지해 줌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예측한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 불확실한 과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종교는 정서적인 지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또한 슬픔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통제의 기제로서 작동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그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한 통제를 보완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교육은 기존의 사회제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가늠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기존 질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변동을 유발하고 발전의 단초를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종교의 '예언가적 역할'이라고도 한다. 여섯째, 개인의 사회화를 돕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종교가 제시하는 가치와 규범은 개인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준거 틀이 된다. 사회구성원이 법이나 규범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내적통제 능력을 가질 때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지난날 한국의 종교가 한국사회와 문화발전에 기여한 바는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종교교육은 각 종교의 포교활동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종교적 정서함양을 통한 인간본성의 전인적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특정종교에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인간상이나 세계인 형성에 앞서 종교일반에 대한 탐구를 통한 도덕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때, 대중문화의 역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인 형성에 기여하는 종교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성건, 《종교와 이데올로기》, 서울: 민영사, 1991.
- 김성민,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 시론>, 《기독교사상》, 2001년 8월호.
- 박정옥, <대중문화와 종교> 《신앙과 지성》, 14호.
-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90.
- 윤이흠, 《현대인의 삶과 종교: 건강한 종교생활의 길》, 서울: 고려한림원, 1993.
- 이강수,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나남, 1989.
- 이원규, <종교 사회학의 발전 과정과 연구 주제>, 《기독교 사상》, 제30호 제 3권. 1986년 7월호.
- 임영호,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1996
- 정병조, 《한국 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 대원정사, 1995.
- 진동열, <포스트모더니즘과 대중성의 문제 - 한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독일어문학회. 《독일어문학》, 제18집. 2002. pp. 239-158.
- 현택수, <텔레비전 방송의 발전과 대중문화>, 《열린세계(SK 사회보)》, 1999년 12월호.
- J. Alexander & S. Seidman 편, Culture and society. 윤민재·남은영 역(1995). 《문화와 사회: 현대적 논쟁의 조명》,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5.
- Durkheim, 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 by J.W.Swain. New York: Free Press, 1965.
- Gans. H. J., 강현두 옮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서울: 나남, 1998.
- Gerald Graff, <The Myth of the Postmodern Breakthrough> in Chung-Ho Chung(ed.). Postmodernism, Seoul : Hanshin, 1990.
- Fromm, E., Man for Himself, N.Y. : Holt Rinehart and co., 1947.
- _____, The Sane Society, N.Y. : Rinehart and co., 1955.
- Myers Kenneth A., All God's Chidren and Blue Suede Shoes: Christians & Popular

22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Culture. 오현미 역,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 서울: 나침반사, 1992.

원고접수: 10월 6일 1차심사: 10월 20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교육사회학 / 소속: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 ② 관심영역: 교육사회학이론, 사회변동과 교육
 - ③ 주요논저: 《교육사회학》, 《현대사회와 교육》, 《평생교육》
 - ④ E-mail: yosong97@chollian.net
-

A Study on Tasks of Religious Education for Mass Culture

Song, Byungsoon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on the premise that it is an important problem to be solv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o purify contaminated mass culture owing to commercialism, aims to show tasks of religious education for purifying mass culture. Particularly, it analyzes characteristics of mass culture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raditional and high culture and mass culture; furthermore, discusses with a critical attitude, propensity to relativistic values and deviation caused by the loss of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ecause of the transience of image, the pursuit of intemperate pleasure as an outlet for satisfying one's desire, and the loss of morality and propensity to violence. And,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esents tasks of religious education for purifying the transience of image that expansively reproduce human desire as follows. First,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a foundation to form an outlook on the world. Second, it should contribute to the unity of our society. Third, it should be able to offer us mental stability. Fourth, it should make up for deficiency from the control of the law. Fifth, it should serve us as a backsight to reevaluate the value of the existing social system. Last, it should function as a helper of the socialization of the individual.

Key words : culture, mass culture, high culture, religion, religious education.